

# LPGA 장하나, 국내투어 복귀 공식 선언

### “메이저대회 욕심 내지 않을 수 없어 앞으로 그랜드슬램 목표로 뛰고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4승의 장하나(28·HC카드)가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전격 복귀하면서 '절대 강자의 자리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장 하나는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2010년 KLPGA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장 하나는 2011년 정규투어에 데뷔해 2014년까지 국내에서 활약했다.

2년 차인 2012년 데뷔 첫 승을 거두고 2013년에는 3승과 함께 대상과 상금왕, 다승왕을 거머쥐었다.

2014년에도 KLPGA 투어에서 2승을 추가한 뒤 LPGA 투어 켈리퍼닝(Q) 스쿨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무대에 뛰어 들었다.

무대는 바뀌었지만 장 하나의 실력은 달라지지 않았다. 데뷔 첫 해 비록 우승은 없었지만 3차례 준우승을 차지하며 빠르게 적응했다.

지난해 '코츠 골프 챔피언십'에서 LPGA 투어 첫 승을 거둔 뒤 HSBC 위민스 챔피언십과 '푸분 타이완 챔피언십'까지 한 해 동안 3승을 쓸어 담았다.

이러한 공황 가방시절을 겪으면서 심적으로나 외적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냈다.

한 동안 투어 생활을 못할 정도였지만 시즌 막판 우승을 추가하며 골프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기도 했다.

올 시즌 메이저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짜릿한 역전 우승으로 LPGA 투어 통산 4승을 달성한 장 하나는 '톱10'에 3차례 오르는데 등 정상급 기량을 보여줬다.

올 시즌 메이저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을 비롯해 일부 대회에 참가하지 않고도 상금 순위 11위를 달리고 있다.

LPGA 투어에서도 정상급의 기량을 보여 주며 한창 전성기를 구가 중인 장 하나의 복귀는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일이지만 KLPGA 투어 입장에서는 흥행 요인을 얻은 셈이다.

장 하나는 KLPGA 투어에서만 통산 8승을 거두고 있다. 미국 진출 첫 해인 2015년 이후 올해까지 총 10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과 준우승 각각 2회씩을 차지했다.

지난해 6월 경기 감각이 떨어진 상태로 출전했던 대회에서 50위에 그쳤던 것으로 제외하면 나머지 9개 대회에서는 '톱7'에 들었다.

지난해 KLPGA 투어를 휩쓸었던 박성현(24·KB손나눔은행)이 미국으로 떠난 뒤 올 시즌 KLPGA 투어는 절대 강자 없는 춘추전국시대를 맞았다. 2승을 거둔 김혜림(28·롯데)을 제외하고 매 대회 새로운



장 하나는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우승자를 배출하고 있다. 국내 복귀를 선언한 장 하나는 지금의 춘추전국시대를 정리할 절대 강자의 반열에 오르게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

통산 8승 중 메이저대회 타이틀을 2개 보유한 그는 5개로 늘어나면서 아직 손에 넣지 못한 3개 대회 정상 등극을 목표로 했다. 장 하나는 "메이저대회에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없다. 그랜드슬램을 목표로 하고 싶다"며 "작은 부담과 설렘이 공존한다. 부

담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새로운 장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오는 6월 제주도에서 연이어 열리는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과 'S-OIL 챔피언십' 출전이 예상된다.

특유의 화려한 우승 세리머니를 볼 수 있을지 벌써부터 많은 골프팬들의 기대를 모은다.

/김민근기자



씨스타, 데뷔 7년 만에 해체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3일 "씨스타 멤버들과 논의 끝에 해체를 결정했다"며 "아쉽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효린·보라·소유·다솜 등 씨스타 멤버들 역시 이날 인터넷 팬카페에 글을 남기며 해체 사실을 밝혔다. 다만 내달 초 만료되는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과 관련해서는 멤버 별로 논의를 하고 있다.

리더인 효린은 "이제 우리 씨스타 멤버들은 제2의 인생을 위해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성장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가창력을 갖춘 효린과 소유는 솔로 가수로 전향할 가능성이 크다. 일일곡 '사랑은 노래를 타고'로 주목 받은 다솜,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보라는 연기자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싱글 '푸시 푸시'로 데뷔한 씨스타는 썸시합과 건강미로 인기를 누려왔다. '기브 잇 투 미' '터치 마이 바디', '셰이크 잇' 등을 음원차트 1위에 올리며 음원강자로 똥했다. 효린과 보라는 유닛 '씨스타9'로 활동하기도 했다. 씨스타는 오는 31일 작곡가 블랙아이드필름이 만든 싱글을 끝으로 팀 활동을 마무리짓는다.

/뉴시스

# 홍상수·김민희 '그 후',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

### “김민희는 내 연인... 그에게서 많은 영감 받아”

홍상수(57) 감독은 22일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70회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작 '그 후'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 "내겐 배우가 정말 중요하다. 그 어떤 감독보다 배우와 장소에서 많은 영감을 얻는다. 김민희는 내게 많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 감독은 배우 김민희(34)와의 관계에 대해 지난 2월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가까운 사이"(I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her)라고 말한 데 이어 3월 한국 기자회견에서 "진솔하게 사랑하는 사이"라고 했다. 이번엔 "연인(lover)"이라고 말했다.

알려진대로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공개된 '그 후' 역시 유부남의 사랑을 담은 작품이었다. 홍 감독은 앞서 "지금껏왔고 그때는틀리다"(2015) '밤의 해변에서 혼자'(2017)에서 같은 주제를 다룬 바 있다.

'그 후'는 회사 직원을 사랑한 유부남 '봉안(권해효)의 이야기를 그린다. 봉안의 아내가 그의 출판사에 처음 출근

한 '이름(김민희)을 남편의 연인으로 착각해 뺨을 때리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후백으로 촬영했고, 간절한 촬영방식과 촌철살인 대사, 뒤돌린 인간 관계와 그 안의 사람들, 홍 감독 특유의 연출 방식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이번 작품은 그의 2번째 장편영화다.

홍 감독은 "나는 늘 영화를 어떻게 찍었는지는 모르겠고 그저 영화를 찍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찍는다. 그러다 보니 많이 찍게 된다. '그 후'를 후백으로 촬영한 것은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 후백으로 찍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계속 고집하다 보니 후백 영화가 됐다. 설명하기는 힘들다. 그냥 느낌상 후백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금껏왔고 그때는틀리다" 이후 '그 후'까지 연달아 네 편의 영화에서 홍 감독 호흡을 맞춘 김민희는 "홍 감독의 작업 방식이 마음에 든다. 홍 감독의 현장에서는 그

날 내 기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즉흥적인 상황은 없다. 철저하게 시나리오 안에서 촬영한다. 항상 새롭고 재밌다. 함께 할 수 있다면 계속 작업하고 싶다"고 했다.

이번 작품이 주목받는 이유는 어느 때보다 수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아서다. 프랑스가 편애하는 연출가인 홍 감독은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2004) '극장전'(2005) '다른 나라에서'(2012)로 경쟁 부문에 초청받은 바 있고, '강원도의 힘'(1998) '잘 알지도 못하면서'(2008) 등이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진출하는 등 올해까지 모두 10편을 칸에 보냈다.

이제는 본상을 받을 때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민희는 홍 감독과 본인 중 누가 상을 받는 게 좋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 같나. 정말 모르겠나"라고 반문한 뒤 "상 욕심은 없다. 받게 된다면 영광이었지만, 그건 심사위원의 몫이다. '그 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아리아나 그란데 '맨체스터 테러, 진심으로 애도'

아리아나 그란데는 22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열린 자신의 투어 콘서트 '데이지러스 우먼' 도중 발생한 테러에 대해 "마음이 찢어진다"고 했다.



그란데는 23일 트위터를 통해 "진심으로 애도한다"며 "달리 할 말이 없다고 짧은 애도의 글을 남겼다."

22일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발생한 폭발로 최소 19명이 사망했고 60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테러는 공연장 로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적자들은 공연 막바지에 굉음이 들렸다고 진술했다. SNS에서는 메이 영국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발생한 폭발에 대해 "희생자와 희생자 유족들의 마음에 공감한다"고 애도했다.

메이 총리는 23일 오전 코브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팝의 요정'으로 불리는 그란데는 비운세, 케이트 페리 등에 뒤이은 차세대 팝 디바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